



전인지(하이트진로)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에비앙 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에비앙챔피언십에서 4라운드 합계 21언더파 263타로 우승했다. 이번 우승으로 전인지는 LPGA 두번째 우승도 메이저 대회에서 거두는 기록까지 세웠다. 전인지가 우승 뒤 밝은 표정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2016 LPGA 한국(계) 우승자	
※우승날짜 한국시간 기준	
	전인지 (한국)
리디아 고	마라톤 클래식 (7.18) 아칸소 챔피언십 (6.27) ANA 인스퍼레이션 (4.4) 기아클래식 (3.28)
김세영	마이어 클래식 (6.20) JTBC 파운더스컵 (3.21)
신지은	텍사스아웃 (5.2)
노무라 하루	스윙잉 스커츠 클래식 (4.25) 호주여자오픈 (2.21)
이민지	롯데 챔피언십 (4.17)
장하나	HSBC 위민스 챔피언스 (3.6) 코초 챔피언십 (2.9)
김효주	퓨어실크 바하마 클래식 (2.1)

프로야구 최종 관중수는? KBO 25일까지 이벤트

KBO가 리그 최초의 800만 관중 돌파를 앞두고 '정규시즌 최종 관중 수 맞히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이번 이벤트는 오는 25일까지 KBO 홈페이지와 공식 앱을 통해 진행되며 정규시즌 종료 시 최종 관중 수를 맞추는 방식이다.

가장 근사한 수치를 예상한 1등 한 명에게는 LG 그랜 15 노트북, 2등 10명에게는 2017 WBC 본선 1라운드 한국 경기 입장권(1인 2매), 3등 20명에게는 CUVA 아트 토이 피규어가 증정된다. 응모는 1인 1회 가능하며 당첨자는 정규시즌이 종료된 후 발표된다.

KBO리그는 18일 현재 누적 관중 777만 1807명을 기록하면서 이르면 이번 주 사상 첫 800만 관중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인지 LPGA 에비앙 최소타 우승…24년만에 신기록

상금 48만7500달러 3위로 경총…신인왕 사실상 확정

“다음 목표는 올림픽 메달”…박성현·유소연 4타차 2위

아기 코끼리 ‘덤보’가 마침내 화려하게 날았다.

‘덤보’ 전인지(22·하이트진로)가 미국 여자프로골프(LPGA)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에비앙챔피언십을 제패했다.

보성 특광중·함평골프고 출신의 전인지는 18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레-뱅의 에비앙 리조트 골프클럽(파71·6470야드)에서 열린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버디 3개와 보기 1개를 묶어 2타를 더 줄여 4라운드 합계 21언더파 263타로 정상에 올랐

다. 공동2위 박성현(23·넵스)과 유소연(26·하나금융)의 추격을 4타차로 따돌린 완벽한 우승이었다.

올해 LPGA투어에 발을 디딘 전인지는 16개 대회 만에, 그것도 메이저대회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려 LPGA 투어에 새로운 강자로 우뚝 섰다. 세 차례나 거둬 준 우승 징크스로 말끔하게 털어버렸다.

전인지는 우승 상금 48만7500달러를 받아 상금랭킹 3위로 올라섰다. 상금 순위로는 한국 선수 가운데 맨 앞이다. 특히 전인

지는 LPGA투어 생애 첫 우승을 작년 US 여자오픈에서 이룬 데 이어 생애 두번째 우승마저 메이저대회에서 올리는 진기록을 세웠다. LPGA투어에서 생애 첫 우승과 두번째 우승을 모두 메이저대회로 장식한 사례는 1998년 박세리(39)와 전인지 두명 뿐이다.

게다가 전인지는 24년 동안 깨지지 않던 LPGA 투어 메이저대회 72홀 최소타 기록까지 갈아치웠다.

1992년 벤티 킹(미국)이 LPGA 챔피언십에서 적어낸 267타를 훌쩍 넘긴 전인지는 쟁아니(대만) 등 4명이 갖고 있던 LPGA 투어 메이저대회 72홀 최다 언더파 기록(19언더파)도 경신했다. 또 제이스 데이(호주)와 헨리크 스텐손(스웨덴)이 세운 미국프로골프(PGA)투어 메이저대회 72홀 최다 언더파 기록(20언더파)도 넘어섰다.

신인왕도 사실상 굳혔다. 신인왕 포인트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던 전인지는 일반 대회보다 두 배 많은 포인트가 걸린 메이저대회 우승으로 추격 여지를 없애버렸다.

전인지의 우승으로 작년 브리티시여자오픈 이후 5개 대회에서 이어졌던 한국 선수 메이저 무관도 해결됐다.

전인지는 “그동안 기다려왔던 우승이라 꿈을 꾸는 것 같다”며 “다치고 난 뒤 심리적으로 부정적인 사이클에 빠졌는데 힘든 시기를 잘 이겨낸 결과인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플레이 중 우승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전인지는 “기다려왔던 우승이라 정말 부담이 됐다. 19언더파가 타이거우이라는 걸 알고 시작했는데 코스와 나의 경기라는 생각을 하면서 경기를 해서 기록을 세운 것 같다”고 말했다.

전인지는 “잘해서 다른 기록을 하나 만들고 싶었고 부담감을 내 스타일로 소화하려고 노력했다”며 “마지막 홀에서도 우승이 다가왔구나 싶은 생각에 울컥했지만, 파로 잘 마무리하고 싶어 퍼팅에 집중했다”고 덧붙였다.

우승을 확정하는 순간의 느낌을 묻자 “LPGA 와서 개인적으로 힘들었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그때 이끌어준 팀원과 가족 생각이 제일 먼저 났다”고 말했다. 다음 목표에 대해서는 “올해 목표는 올림픽이었는데 그 목표를 이뤘고 다음 기회가 주어진다면 메달을 걸어보고 싶다”며 “올림픽으로 골프가 다시 재밌어졌는데 길게 보고 싶다. 내 인생의 꽃은 아직 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꽃을 피우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KIA 고효준, 모자에 쓴 28의 의미는

“경기 때는 함께할래요.”

KIA 좌완 고효준은 올 시즌 새로운 팀에서 새로운 출발을 했다. 지난 7월31일 임준혁과의 트레이드로 SK에서 유니폼을 갈아입은 그는 볼펜에서 시작해 선발로도 역할을 하고 있다. 잊혀져 가던 이름 고효준은 알짜배기 활약 속에 KIA 마운드의 등극한 이름이 되고 있다.

타이거즈 투수라는 새 이름을 얻은 그는 지난 8일 NC전부터 모자에 ‘28’(사지)이라는 숫자를 쓰고 등판을 하고 있다. 훈련을 할 때는 숫자가 적히지 않은 모자를 쓰지만 마운드에 오를 때는 ‘28번’모자를 착용하고 있다.

‘28’은 얼마 전 은퇴를 선언한 SK 투수 전병두의 다른 이름이다. KIA에서 뛰기도 했던 전병두는 28번을 쓰고 있다. 고효준은 한술밥을 먹던 각별한 1년 후배가 마운드를 떠나기로 결정하자 함께한다는 의미로 모자에 큼직 막하게 전병두의 번호를 썼다.

둘은 환호의 시간과 아픔의 시간을 함께한 특별한 선후배다. 빠른 볼을 앞세운 두 좌완은 선발과 볼펜을 오가면서 2009년 SK 마운드를 이끌었다. 고효준은 39경기서 126.2이닝을 책임지면서 11승10패 2세이브 1홀드를 기록했다. 전병두는 이해 133.1이닝(49경기)을 소화하면서 8승4패 8세이브 1홀드의 성적을 남겼다. 평균자책점은 3.11. 화려했지만 많은 부담을 지어왔던 전병두는 2011년 결국 왼쪽 어깨 회전근구



“SK서 함께 뒀 전병두 번호 긴 재할·은퇴 결심 안타까워 후배와 팀 위해 공 던질 것”

술을 받아야 했다. 그리고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재활로 보냈다.

2009년 마운드에서 환하게 빛났던 두 사람은 2016년에는 험악한 시간을 함께했다. 갈림길에 선 고효준은 ‘어게인 2009’를 외치면서 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길을 모색했다. 전병두는 마운드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놓기로 했다. 은퇴를 결정한 전병두는 마지막 무대를 준비하고 있다. 전병두는 김용희 감독과 구단의 배려 속에 10월8일 삼성과의 시즌 최종전에서 은퇴 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고효준은 “마운드에 오를 때는 28번을 쓴 모자를 쓸 생각이다. 같이 던진다는 생각이다. 정말 성실했던 후배다. 나도 훈련은 남들 못지 않게 열심히 했다

고 생각하는 데 일찍 훈련을 하려 가면 병두가 더 먼저 와서 훈련을 하고 있었다. 성격도 조용조용하니 파이팅을 외치면서 주먹을 내밀어도 살피지 손을 감싸던 선수다”고 전병두를 이야기했다.

자신도 부상으로 재활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전병두의 지난 시간과 결심에 공감이 가고 안타깝다. 고효준은 “병두가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노력을 했다. 재활을 해봐서 알지만 그 시간이 보통 힘든 게 아니다. 그걸 다 이겨내고 재활을 했던 만큼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강했다.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 마음을 알 것 같다”고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다.

후배와 함께하기에 마운드에 서는 마음이 간절한 고효준이다. 승리에 대한 욕심도 나지만 아직은 승운이 따르지 않고 있다. 고효준은 첫 선발 등판을 5이닝 1실점으로 장식한 뒤 5번의 선발 등판에서 승 없이 1패만 기록하고 있다. 18일 한화전에서도 4회까지 1실점으로 막고도 5회 몸에 맞는 볼과 실책에 흔들리면서 승리 기회를 놓쳤다. 순위 싸움에 사활을 걸고 있는 팀 사정상 선발 자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부담 많은 9월을 보내고 있지만 마운드에 오를 수 있다는 자체로 행복한 고효준. 그가 후배와 팀을 위해 공을 던지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



세인트루이스에 오승환이 없었다면...

72경기 5승2패 14홀드 18S

98탈삼진 평균자책점 1.79

포스트시즌 경쟁 ‘뒤틀문 든’

신인 20S·100탈삼진 도전

오승환(34·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없었다면, 올해 세인트루이스는 일찌감치 포스트시즌 경쟁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크다.

30대 중반에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오승환은 시즌 막판까지 위력적인 구위를 유지하며 뒤틀문을 책임진다. 현재 오승환은 72경기에서 75.1이닝을 소화했고, 5승 2패 14홀드 18세이브 98탈삼진 평균자책점 1.79를 기록 중이다. 메이저리그 전체 등판 경기 수 공동 5위에 해당하는 정도로 자주 등판하고 있는 가운데 1점대 평균자책점과 WHIP(이닝당 출루허용) 0.89를 유지해 리그 정상급 볼펜투수로 우뚝 섰다.

오승환의 기록은 메이저리그 역사를 뒤

져봐도 손에 꼽을 만큼 훌륭하다.

메이저리그 기록 전문 사이트 ‘베이스볼-레퍼런스’에 따르면 신인 가운데 20세 이브와 100탈삼진을 동시에 달성한 건 1901년 이후 단 5명뿐이다. 가장 최근에는 크레이그 킴브럴(보스턴 레드삭스)이 2011년 애틀랜타 브레이브스 소속으로 46세이브와 삼진 127개를 잡았다. 그해 킴브럴은 신인왕을 수상했고, 이후 4년 연속 리그 구원왕에 올랐다.

오승환은 20세이브에 2개, 100탈삼진 역시 2개만을 남겨뒀다. 정규시즌 13경기만 남은 만큼 현재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다. 만약 오승환이 4.2이닝을 더 던져 시즌 80이닝을 채우면, 메이저리그 역사상 세 번째 신인 ‘20세 이브·100탈삼진·80이닝’ 투수가 된다.

마지막 기록 달성은 44년 전인 1972년 테리 포스터(시카고 화이트삭스)로 29세 이브와 104탈삼진, 100이닝을 기록했다. 투수 분업화가 이뤄지기 전임을 고려하면 오승환은 메이저리그 역사에 남을 시즌을 보내고 있는 셈이다. /연합뉴스